

제목: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 마태복음 16장 13-16절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사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맞으며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름은 알고 있으나 정작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나의 신앙은 진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 없는 교회는 신앙과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 1) 하나님의 _____입니다.
- 2) 하나님의 _____입니다.
- 3) 하나님의 _____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지금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호세아 10장 12절)
"Break up your unplowed ground and seek the Lord" (Hosea 10: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 도 자
Call to Worship President
- * 찬 양 다 같 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 같 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마태복음 16장 13-16절 설 교 자
Scripture Reading Matthew 16: 13-16 신약 27 페이지 President
- 말 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김성민 목사
Message Who is Jesus? Rev. Kim
- 찬 양 90(98)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다 같 이
Praise I've Found a Friend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 같 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 도 자
Announcement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다 같 이
Praise and Prayer I Am Here Lord All Together
- * 축 도 설 교 자
Benediction Rev. Kim

지난 주 헌금	
주일	
십일조	
합계	

새로운 교회와 함께 하는 선교지	
프랑스	백남일 김유경 선교사 (북 아프리카 사역)
터어키	SILKWAVE 실크 웨이브 선교회 (이슬람권 사역)
한인 2세권 교회	Deep Roots Church 깊은 뿌리교회 (New Jersey, USA)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뒤뜰의 잡초)

지난 주 오랜 만에 뒤뜰에 나가보았다. 한 달이 넘게 비가오던 뒤뜰을 창문 너머로 보며 가끔 감상하곤 했지만 나갈 일은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처음 나간 것이다. 그런데 멀리서 보았던 뒤뜰과 직접 나가 보았던 광경은 전혀 달랐다. 멀리서 보았을 때에는 아름답기만 했지만 가까이에서 보았던 뒤뜰에는 잡초가 많이 자라 있었다. 내 생각에는 아직 겨울이라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만 같았지만 봄을 알리는 잡초들이 자라기 시작한 것이다. 부랴부랴 작년엔 사다가 놓은 값비싼 잡초 약을 물에 듬뿍 섞어 마음껏 뿌리기 시작했다. 자라는 잡초를 처음부터 다스리지 않으면 나중에 힘이 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앞뜰과 뒤뜰을 돌아가며 한 시간 가량 뿌렸던 것 같다. 그리고 안도의 한 숨을 쉬고 의자에 앉았다. 해는 거의 지고 있었다. 그런데 창밖을 보니 하늘이 어제 그때보다 많이 어둡다. 급하게 일기예보를 찾아보았다. 이를 어쩌나! 2시간 뒤부터 밤새도록 비가 온다는 것이다.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힘들게 돈을 들여 뿌린 약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급한 마음에 괜히 수고하게 된 것이다. 며칠 뒤 날씨가 좋아지면 다시 뿌려야겠다.

그 잡초를 보면서 봄이 오는 것을 직감했다. 아직은 50도를 겨우 넘고 있지만 식물들은 그렇게 따지지 않는 것 같다. 자신이 앞을 내고 꽃을 내야 할 때를 알고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지도 상관하지도 또한 알지도 못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나도 그렇게 덜 민감하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텐데 세상에 너무나 민감해서 정작 민감해야 할 믿음생활이 무덤덤해지는 경우들이 생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꽃을 내고 살아야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의 온도를 측정해서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라고 하신다. 구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지금 우리는 많은 소식을 듣는다.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다. 약이 없는 병이 돌아서 온 세계가 떠들썩하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일어나고 얼마나 더 크게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마음이 급하고 안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잡초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때를 알고 피어나듯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하며 세계가 더욱 좁아짐을 알 때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 넓어질 것이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이 들어나기를 바라며 기도한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실에서 사랑의 만남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 2)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새로운 성도들 잘 정착 하도록
- 3) 새로이 사역 하실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중고등부, 영어회중)
- 4)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 5) 열심히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6) 전 세계 폐렴으로 고생하는 나라들과 이 지역의 회복을 위하여
- 7) 우리가 꿈꾸고 있는 오아시스(쉼터) 사역이 구체적으로 준비 될 수 있도록

프랑스: 백남일, 김유경 선교사님 북 아프리카 사역을 위하여
터어키: 터어키 교회 목회자들을 위하여
깊은 뿌리교회: 교회 2세권들의 영적인 건강과 성령 충만함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기도하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3월호가 준비되었습니다. 한 권씩 가지고 가서서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0.00)

5. 3-4월 행사

사순절 시작	2월 26일(수) 부터
종려주일	4월 5일(주)
고난주간	4월 5-11일
부활절	4월 12일(주)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